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라
(잠언 16:3)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이종국

제5회 충현올림픽 '뽕자 퍼치자 예수사랑'

10월 3일(화), 한양대학교 운동장에서

모든 준비 마치고 개막만을 기다려

유아에서 노년까지 전 교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준비

당일 오전 8시 30분까지 집합, 9시에 개회예배, 모든 순서 오후 4시10분에 마쳐

제5회 충현올림픽이 이제 10월 3일(화)로 다가왔다. 한양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리는 금년 올림픽에는 지난 6월에 있었던 예수사랑 큰잔치 때 우리 교회에 나와서 믿기로 작정한 새가족들을 비롯해서, 새신자, 태신자, 전도대상자를 포함한 전 교인이 참석하여 서로간의 화목과 협력일치하는 신앙공동체의 한마당이 되도록 계획하고 준비했다.

올림픽은 전 교구를 4개 팀으로 나누어 각 팀별 대항으로 경기 및 게임을 하고 종합 점수를 산정하여 등수를 정하고 시상할 예정이지만 그러나 이 올림픽이 협력과 일치의 한마당이 되게 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새신자, 새가족, 태신자들을 많이 참석시켜 전 교인 1회 이상 참여할 수 있게 하며 팀간 경쟁의식보다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신앙적인 행사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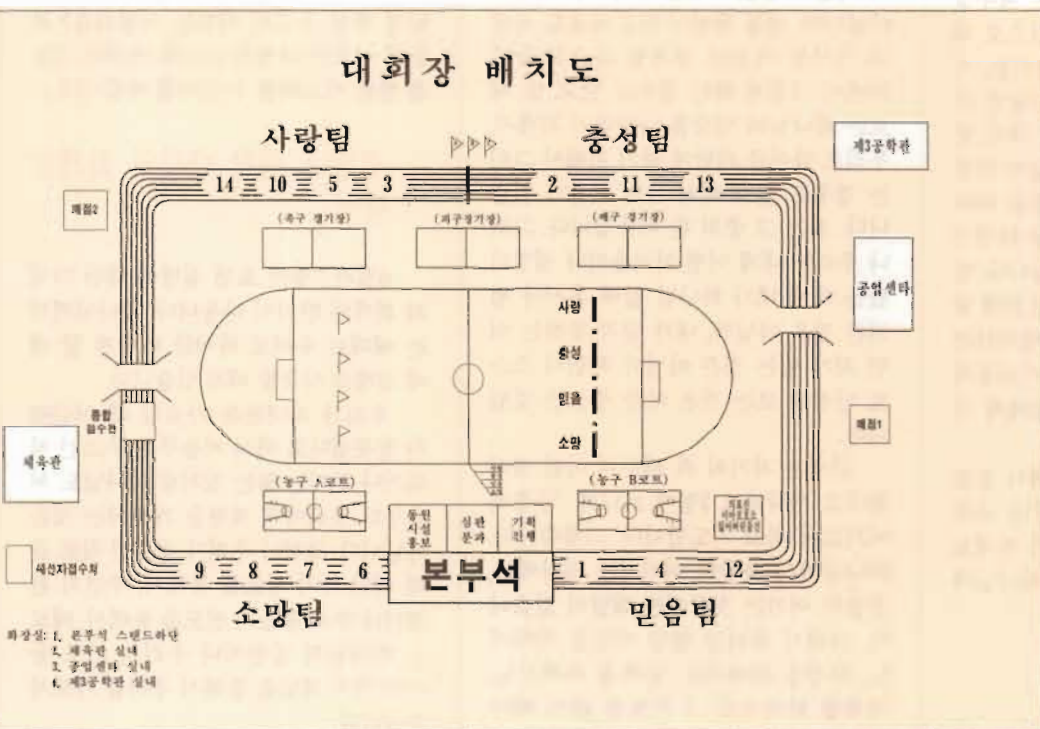
준비위원회에서 특별히 준비한 것은 전 교인이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이런 면에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준비위원회는 전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

제9대 안수집사 장립 및 제37대 권사 취임식

10월 18일(수), 오후 7시에

교회는 지난 3월 19일에 피택된 안수집사 40명과 권사 67명에 대한 고사를 지난 9월 30일(토)에 가졌다. 그동안 피택자들은 6개월에 걸쳐 철저한 교육을 받았고 지난 9월 30일(토) 면접 및 필답고사를 마쳤다. 필답고사는 헌법, 교회론, 성경이었다. 이러한 모든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4일(수) 정기당회에서 임직예정자를 확정하게 된다.

확정된 임직 예정자는 충현기도원에서 1일간 금식기도회를 갖고 10월 18일(수) 저녁에 장립 및 취임식을 갖게 된다.



유아에서부터 초등6부까지는 박트리기, 청년, 대학, 중고등학생을 위해서는 때거리 축구 및 번외경기로 족구, 농구, 배구, 피구 등을 준비했고 또한 중고등학생들의 릴레이경기, 청년·대학생이 중심이 되어 펼칠 줄다리기 등 힘있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많이 준비하여 전교인이 함께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랑부와 예배다부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한편 대학부에서는 당일 매점운영을

충현올림픽 심판규칙 및 경기진행 설명회

오늘 오후 4시, 갈릴리홀에서 각 팀 단장, 임원, 각 경기 감독 및 출전선수 전원

제5회 충현올림픽 심판분과(분과장 박승준)는 오늘(10월 1일), 오후 4시에 갈릴리홀에서 각 팀 단장 및 임원, 각 경기 감독 및 출전선수 전원이 모인 가운데 마지막 정리를 하게 된다.

이는 올림픽에서 가장 실제적인 일 이기에 반드시 해당자 모두가 참석하여 의견조정을 끝내야 올림픽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가 있다.

말아 다양한 메뉴와 최상의 서비스로 전 교인에게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모든 준

모두 마쳐지게 되어있다.



제4회 컴세미나 모두 마쳐

지난 9월 20일(수)부터 시작된 제4회 컴세미나가 9월 28일(목)까지 8박 9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회교권 목회자 35명이 8박 9일 동안 머물면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장, 한국에 대해 여러 가지를 보고 배우고 느끼며 지냈다. 기간 중 총신대 방문, 교회내 여러 부문의 견학, 강의, 분임토의 등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얻고 떠났다. 참석한 목회자는 이집트에서 27명, 수단에서 3명, 터키에서 5명 등 35명이 참석했다. 이제 그들을 위해, 그 땅의 복음화를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기도하는 일이 남았다.



충현강단

시편 강해 6

치유를 위한 기도 (시 6:1-10)

1. 본문의 배경

시편에는 일곱 개(6, 32, 38, 51, 102, 130, 143편)의 회개의 기도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부분적인 절들까지 말한다면 150편 전체에 다 있습니다만 회개만을 위한 기도는 일곱 개가 있는데 본문은 그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이 당시 다윗은 내적인 어려움과 외적인 어려움을 다 안고 있었습니다. 외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압살롬의 반란입니다. 사랑하는 네번째 아들인 압살롬이 대권을 잡으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을 떠나 마하나임으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란 조석변개예요. 그동안 그의 밑에서 행복도 누리고 여러 가지 권력도 누리면서 살던 모든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배신하고 모두가 압살롬을 따라 갑니다. 이제 다윗은 망명생활을 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입장입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옆친데 덮친 격으로 그는 내적으로도 질병이라는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외적인 어려움과 내적인 어려움이 한꺼번에 다윗에게 닥쳐왔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환경 속에서 오늘이 시편 6편과 같은 기도를 합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그의 죄에 대한 징계로 보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2. 본문내용의 요약

시편 6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집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는 다섯 가지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 보면 질병에 대한 다윗의 회개와 탄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인 8절에서 10절까지에는 그의 확신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질병이 있기도 하고, 가정의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자녀의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혹은 목회자로서 고통이 있기도 하고, 또 민족적인, 세계적인, 환경적인 여러 가지의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제 바라기는 그럴 때에라도, 바로 여기 다윗이 마지막 때에 가지게 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모두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3. 하나님께 대한 다섯 가지의 간구

그때 다윗이 기도한 내용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로 2절에 보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둘째로 역시 2절에 "나를 고쳐 주옵소서". 그리고 4절에 "나

의 영혼을 건지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로 돌아와 구원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런 다섯 가지의 기도를 놓고 그는 밤마다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건책하지 마옵시며" 하면서 그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윗은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외적인 어려움 또는 질병을 주의 분으로, 주의 진노로 보았습니다.

물론 사람이 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질병에 걸렸을 때 그것이 모두 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생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사를 가졌던 것처럼 자고치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죄는 그 중의 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게 어떤 어려움이나 질병이 왔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나 범죄한 것은 아닐까,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죄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스스로 반성해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 때문에 이런 병이 왔다고 생각하고 2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밖에는, 긍휼히 여기는 것밖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개인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민족을 위해서도, 세계를 위해서도 그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둘째로 그는 "나를 고치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만이 그의 치유자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라고 해서 의사가 없었던 것 아니예요. 왕의 옆에 의사가 없을 리가 있나요? 그러나 그는 치유자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병의 치유자도, 영혼의 치유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치유자도, 우리 민족의 치유자도, 이 세계의 치유자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고쳐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셋째로 그는 또 내 영혼을 건져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육체만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영혼을 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로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섯째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염치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생명보다 그것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내게 돌아와 주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고 구하는 자를 멸시치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여기서 우리는 질병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 먼저 기도에서 시작해야 할 것을 교훈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은대로 거두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질병은 회개만이 낫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의사나 간호사나 약사는 그의 손일 뿐 치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자를 용서 안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과연 우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에 대한 다윗의 회개와 탄식

6절과 7절에 보면 질병에 대한 다윗의 회개와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할 때에 질병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어린이가 잘못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무조건 때리거나 하지는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처음부터 우리에게 체형을 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주변의 환경이나 주의 종들의 선포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의 기도 등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것은 마치 노새와 같고, 당나귀와 같습니다. 안 끌려잡니다. 아무것도 아닌 조그마한 회생조차도 안하려고 합니다. 심령이 그럴 때 하나님이 체형을 가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질병입니다. 사람들은 병에 걸려 놓으면 천하 장사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맞고 믿지 말고, 매맞고 부르짖지 말고, 축복받으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다윗은 얼마나 눈물의 기도를 했는지 그의 눈이 쇠하였다고 했습니다. 눈에서 진물이 나고 앞이 잘 보이지 않도록 그는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내가 누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닌가, 내가 남보다 무슨 죄가 많다고 재수없게 나만 그런가 불평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질병이 다가올 때 다윗과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세 가지의 이유를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죽게 될 경우 하나님을 기억할 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으니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두번째는 밤마다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고 있으니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값

으로 인한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세번째는 눈이 근심으로 인하여 어두워진 것을 그는 지적하며 질병을 고쳐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5. 다윗의 확신

마지막으로 8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다윗의 확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눈물의 기도는 확신으로 변합니다. 그 확신이 어디서 왔느냐, 기도하는 가운데 왔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확신이 생겨 집니다. 여기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들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입이 닫혀있을 뿐입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은 기도 중에 벌써 응답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땀이 흘려서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여기서 우리는 질병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 먼저 기도에서 시작해야 할 것을 교훈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은대로 거두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질병은 회개만이 낫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의사나 간호사나 약사는 그의 손일 뿐 치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치유문제를 등한시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주님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자와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환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입었다(막 16:18)고 한 것은 단순히 과거의 일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영육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건강하고 힘차게 승리자의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만병의 의사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5회 충청올림픽

올림픽 당일 꼭 지켜야 할 일들

1. 질서유지 및 인원보고

참석자 전원은 소속 팀 응원단석에서 질서정연하게 앉아 경기를 관람하시고 각 팀의 단장은 각 팀별 참석인원을 교구별로 집계하여 총 참석인원 수를 본부석 동원분과 앞으로 점심시간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새신자 안내

- 당일 참석하는 새신자를 위한 접수처(새가족위원회 주관)를 별도로 설치, 운영하오니 인도자 또는 각 교구의 교역자들은 새신자들이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 주시기 바랍니다.

- 새신자들이 전원(인원제한 없음) 참가하는 '충현교회' 건축에 대한 경기 중목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십시오.

3. 매점이용

대학부에서는 매점을 운영하며 시중에서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간단한 식사와 간식, 음료, 간식 등을 두 곳에서 판매합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4. 팀별 본부석

각 팀내에서 효과적인 행정전달, 응원의 효율화를 위하여 소형 앰프 및 마이크를 동일한 기종으로 설치하였으며, 시설부에서는 본부 집기 및 전화기(인터넷)를 설치하였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인터넷 봉사자를 항상 대기시켜 연락 업무를 담당)

연계버스

← 황십리방면 일반 19, 62, 63, 67, 69, 67-1, 73-1, 500, 542, 543, 555, 570, 570-2, 572, 5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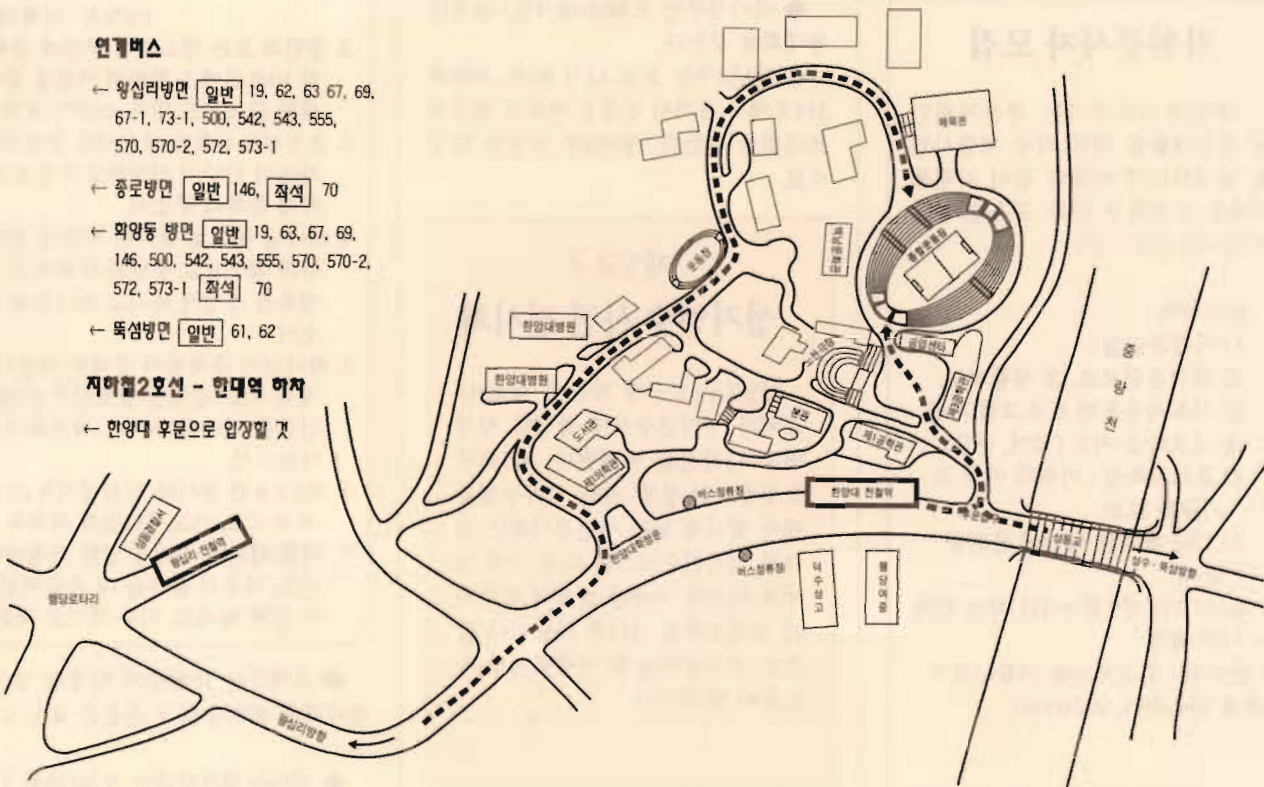
← 중로방면 일반 146, 좌석 70

← 화양동 방면 일반 19, 63, 67, 69, 146, 500, 542, 543, 555, 570, 570-2, 572, 573-1 좌석 70

← 독성방면 일반 61, 62

지하철2호선 - 한대역 하차

← 한양대 후문으로 입장할 것



5. 안내방송

대회장 본부석에 남·녀 아나운서를 통하여 각종 게임공지, 행사안내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며 기타 안내방송

도 각 팀의 단장이 요청하면 수시로 방송토록 하겠습니다.

6. 교통안내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성도들은 차량부 봉사요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적극 협조하여 주십시오. 버스 또는 지하철(2호선)을 이용하시는 성도들은 한양대학교 후문을 통과하여 출입하시는 것이 가깝습니다.

7. 의료부, 미아보호소 및 분실물 센터 등

의료부, 미아보호소 및 기타 부대시설은 본부석 오른쪽(민음팀 본부석 앞) 운동장에 텐트를 설치 운영합니다. 경기 중 부상자 또는 환자들은 이곳을 이용하십시오.

8. 모든 기물, 시설물 깨끗히 사용

한양대학교 캠퍼스에 있는 시설물(각종 구내건물 화장실 이용, 잔디 및 나무)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주위를 깨끗하게 하여 성도의 바른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

행사진행에 대한 내용은 당일 배포하는 팸플렛을 참고하시고 각 팀 단장과 진행부 요원들의 경기 안내를 받아 경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부 1년생
올림픽 자원 봉사 맡아

대학부 1학년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이 발족해 올림픽을 준비하는 일에 여러모로 봉사하고 있다.

이들은 기획팀들이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간 일에서부터 힘을 써야 하는 일 등을 자발적으로 나서서 감당하고 있다.

특히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중 중요한 것은 올림픽 후에 모든 시설물들을 철거하는 일이다.

자원봉사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박정남 김범진 박기범 양성민 우종철 이강재 이상원 이요한 이준환 이한빈 정희창 김재우 이상훈 이성진 강경운 윤희원 유성수

충현올림픽에서 대학부 매점 운영
최선의 서비스와 다양한 메뉴로

충현올림픽 때 대학부에서 매점을 운영합니다. 맛있고 저렴한 가격의 식사류(김밥, 샌드위치, 컵라면, 떡, 전, 오뎅 등)와 음료, 빙과, 스낵 등 다양한 메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입의 일부는 대학부 사역비로, 또 일부는 수해를 입은 북한주민을 돕는 일에 쓰입니다. 최선의 서비스와 준비로 섬기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여리고 용사들 · 출애굽 경기 선수 명단

팀	여리고 용사들	출애굽경기
민음	성봉환 박정규 장봉생 윤종일 김종구 오정현 임중석 장동익 주영선 강남훈 김대웅 김홍원 홍경선 정옥득 송진경 송미경 염경자 이성민 김경록 류 선 안영준 김대성 박진기 김성현 유원호 오신규 김준희 이선화 정정자 박영이 방군자 안상숙 최경숙 양승남 김영화 임창순 이상곤 나승은 백운홍 류정열 안희정 류기영	오인숙 윤인숙 배옥인 정양순 김정자 임태주 이재완 김학민 김상섭 김민성 김만균 한규창 이순자 양성자 이옥순 유숙현 이명자 정정자 김경숙 강정옥 유숙자 이복경 하해인 김미순 조영숙 태일희 광명자 한인숙 박정순 신명희 김신후 김형곤 홍원석 박우현 정영래 남성락
소망	장정철 윤삼중 김필수 강은원 최성현 이 혼 김완주 이주훈 김희태 김광근 남종호 박지완 강숙희 김미영 김경희 오은주 기정임 윤미경 오명호 신익선 전용길 김현석 윤길수 박성대 권정숙 김지현 이행자 장은주 박정하 이순옥 강소영 김선희 한성희 조은영 정이랑 민병옥 성동구 이 준 윤상규 임연수 전인걸 박완용	장혜순 장영자 최지혜 박도수 박희자 한영준 김영자 김순오 김영자 김소선 한수미 라영실 조원근 채종성 김희준 정재용 양정현 최요설 박선미 박수경 권승미 정문희 김영아 오수희 권정미 김윤정 장인실 차명선 김영순 김수연 송무영 김성화 서정훈 권병철 이진수 차대운
사랑	김동석 이승립 정광호 손동운 현승조 박경용 권백용 강남진 이동우 유기준 차 희 임명순 김동규 권순탁 강옥석 이상문 성 중 김우준 최정열 박동화 박종태 김대중 이명국 허 오 김중선 염종석 최홍섭 정우성강호원 강석준 이동규 오동혁 홍성욱 김경아 김금자 김근호 박용기 윤병석 김형동 정명옥 한옥봉	계선화 최명자 송향자 박종화 현정남 김정순 문경덕 신종기 민용기 오정임 전소연 이선옥 주정심 김성호 박애숙 이종섭 강경의 김영선 이덕순 황현호 장영준 김부영 박현순 김선자 손영호 한정은 예자야 석정란 신영순 홍양래
충성	김찬곤 김희수 이종대 김명길 장모용 김의철 신철우 강남석 홍금호 송병열 이영만 박춘기 김대성 정효석 전대영 정대현 최강진 권영남 강두형 장문성 조용진 김기윤 윤성열 성대열 김행자 김경숙 조복선 유정선 노미래 공인화 박영남 위용숙 장용숙 이원희 진화자 김유자 김성희 이용순 정영희 최석규 박진수 김연진	최순복 김영숙 신동자 손미희 김옥윤 오정숙 홍명순 신정숙 황종임 이정효 명정옥 이상덕 박현숙 서미라 이영숙 김수정 박옥자 김수정 김연진 김미연 조을행 김금숙 이재숙 허미자 박상대 김운섭 이정관 박석산 권중식 구승희 유병수 장완준 장병준 김국원 김중호 김태식

토·목·소·식

- ◆ 초등3부는 오늘 성경이야기 대회 본선을 치른다.
- ◆ 초등4부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잔치' (반별 장기자랑)을 10월 8일(주일)에 개최한다.
- ◆ 중등1·2·3부는 10월 28일 연합으로 '시와 찬양의 밤' 모임을 갖는다.

자원봉사자 모집

충현복지관에서는 정신지체의 전인재활을 위한 각종 재활사업을 실시하는데 아래와 같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교우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봉사영역

- 1) 작업훈련실:
 - ① 작업훈련보조, ② 생활지도, ③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지원, ④ 기초학습 지도 (국어, 산수)
 - 2) 조기교육실: 미취학 아동 조 기교육 보조
 - 3) 기타 복지관 사업에 관련된 분야
2. 봉사기간: 주1회 4시간 이상 원하는 시간 배정
3. 문의처: 충현복지관 재활사업부 (전화 564-4885, 562-0548)

장소는 갈릴리홀이며, 중등1·2·3부 학생들의 시와 원고를 부탁하고 있다.

◆ 고등부는 코이노니아의 밤을 위한 중창페스티벌, 포스터 아이디어 등을 공모한다. 기간은 10월 8일(주일)이다.

◆ 청년1부는 10월 8일(주일) 면려회 총회를 개최한다. 금년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후보자들을 등록케 함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후보자를 잘 알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특히 금년 회장후보에는 자매도 끼어 있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 새가정부는 오늘(10월 1일) 성경암송대회를 갖는다.

◆ 장년2부는 오늘 12시 30분, 교육관 314호에서 읍거시 전장을 범위로 성경퀴즈대회를 갖는다. 장년2부 전원을 대상으로.

제5교구

성지연수 사진 전시회

제5교구(교구장 박승준 장로)는 교역자 성지연수시에 촬영한 성지연수 사진전을 마련했다. 제5교구 모임장소인 본당 지하 임마누엘홀에서 열리게 되는 사진전시회는 교역자 성지연수코스를 따라 그때 그때의 사진과 자세한 설명이 첨가되어 성지순례를 다녀온 사람이나 앞으로 성지순례를 갈 사람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 주소서.
 - 김창인 목사: 10/3(화) 충현올림픽
 - 신성중 목사: 10/2(월) 목회자 세미나 강의
 - 10/2(월) 이천군복음화대성회 설교
 - 10/3(화) 충현올림픽
 - 10/4(수) 10월 정기당회
 - 10/5(목) 이화여대 채플 설교
2.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시작 10분전에 도착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드림으로써 은혜 충만하게 하시며,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소서.
3. 초창전도집회와 예수사랑 큰잔치 때의 결신자들이 등록자가 되게 하시고 등록자들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인도자와 양육위원들과 교구, 지역, 구역에서 잘 양육하게 축복해 주소서.
4. 하나님 뜻대로 맡겨진 직분에 겸손히 충성하면서 각 구역과 부서별 공동체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게 하시며, 환자들의 영육을 소성케 하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며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소서.
5. 하나님이 축복하시 공의와 사랑이 조화된 선진국으로서 선교하는 통일한국이 되게 하시고,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에게 믿음과 지혜의 충만함과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세계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금년에도 풍년을 허락하소서.
6. 제2교육관 공사와 길림성기독교신학원의 설립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족의 건강을 축복하소서.
7. 각종 재난과 수해를 당한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이웃의 슬픔을 내 슬픔처럼 함께 나누게 하시며, 북한의 수해복구를 도울 수 있게 하시고, 이를 계기로 북한이 변화되게 하소서.

◆ 소망부는 10월중에 있게될 성경암송대회를 준비중이다. 본문은 요일 4:11-21.

◆ 임마누엘찬양대는 오늘(10월 1일)

부터 지정화석제를 실시한다. 찬양대원들의 건강과 최고의 모습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95년도 9개월을 선교지에서 영원한 과거로 보냈습니다. 세월이 이곳의 수리남 강물보다 더 빨리 흐름을 체험하면서 선교지의 소식을 보냅니다.

지난번 소식을 전할 때 사브리나를 아실 것입니다. 결혼식에 참석하였던 동생 인디라가 결혼식 후 가족과

함께 회화를 출석하기 시작하여 성경도 열심히 써오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여 1995년 5월 23일 잠방을 가서 일대일로 예수님 초경을 해서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인디라는 언니 사브리나와 같이 모습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며 그 남편 디팰은 한두스탄으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나 열심히 회화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곳 수리남의 가족관계는 복잡하여 쉽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모습은 아내가 '뱀'이 되고, 결혼선교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이혼을 쉽게 하며, 이곳 자국에 집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집을 방문해도 아예 제생이 다른 아이들에 한 줄타리 안에서 살고 있으며, 심지어는 어머니의 생을 따라 이름을 가진 아이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러한 문제로 세례를 베풀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수리남 교회의 현실입니다. 침례교와 장로교(수리남에서 제회 뿐이 제단)에서는 그런 경우 세례를 주지 않지만 모라비안교와 나 천주교에서는 세례나 결혼식을 해줌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바 침례교의 슈스터 목사님 내외를 장사로 모시고 결혼,



선교지에서 온 소식 / 수리남 안석렬 선교사

연약한 기반 위에 이단이 들어와 물량공세를 펴며 확장하고 있어

가정, 신앙 등의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예상보다는 적은 22명이 모였지만 좋은 반응을 얻은 줄입니다.

1995년 8월 17-18일 한인교회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를 실시했습니다. 6명의 학생이지만 학교가 각각 다르고 학교마다 방학이 다르므로 어려운 시간표 속에서 17, 18일 양일을 얻어 교회에서 1박 2일로 여름어린이 성경학교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95년 9월 12-15일에는 한인교회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를 실시했습니다. 8월 중순에 방학에 들어가 10월초에 개학하는 한인교회 주일학교생들을 위해 4일간 여름성경학교를 실시했습니다. 특별히 방학이라 친척들의 자장을 방문하고 있는 기간이어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주일에도 쉼 없이 나오고 있어서 며칠 동안 안내자를 낸다고 약 200가구가 가까이 개별 방문을 하면서 출석률 요청하며 약 70명 가량의 새신자가 생겼고, 어른도 17가정이 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12일은 114명, 13일은 122명, 14일은 129명, 15일은 110명이 출석하였습니다. 특별히 15일은 교회 가까이 있는 S.O.G.라는 장애인 체육관을 빌려 게임

과 수영을 함으로 이 수영 때문에 성경학교에 참석한 아이들이 있을 정도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가이아나에서 수교하시는 장대성 선교사(2A 충현교회 정상우 목사 파송) 초청으로 '성경연구원 개원식'에 참석하고 며칠동안 장선교사님 사역지를 돌아보며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배웠으며 또 많은 선교협력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내년에 있을 대통령선거 때문에 정부가 물가를 잡으려고 애써서 730:1까지 올랐던 환율이 455:1로 안정(?)이 되었지만 물가는 여전히 약 600:1이 유지됨으로 '달러를 바꾸어 쓰는 사람들은 더욱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습니다. 환율은 거의 60%가 내려졌지만 기름값은 175달러에서 5달러 내린 170달러인 것을 보아도 물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수리남에 있는 다른 한인교회인 '제일장로교회'를 시무하시던 최목사님이 갑자기 미국으로 가시고 대신 김위중 목사와 사모 그리고 장모님이 오셔서 교회를 돌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그 교회에는 안계셔서 제가 그동안 외국인 등록과 교회장관 등등의 일들을 도와드리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

습니다. 목회자들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이곳 한인사회도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것과 같이 이단이 들어와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가정을 교회화 하기 위해 건물 확장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량공세를 펴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바 물질적인 것을

바라는 몇 가정이 그 집회에 참석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공부하던 두 딸 송영이와 위영이 그리고 가족대표로 장인 되시는 이수호 장로님께서 70이 넘으신 몸으로 선교지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오셔서 가정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한인교회에서 기도를 담당하시고, 한인교회 주일학교에서도 말씀을 전하셨고, 저회들의 옷가게를 수선해 주시면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6주만인 8월 11일 출국하셨습니다. 송영이와 위영이는 요한에게서 영약과 피아노를 가르쳐 주었고, 주일학교 정장학교의 교사로 예배시 피아노 연주 등을 도와주고 8주만인 8월 24일 출국하셨습니다. 송영이는 9월부터 10학년이고 위영이는 9학년입니다. 요한이는 이곳에서 8월 21일부터 4학년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의 환경과 이단과 교회와 현지인과 한인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1995년 9월 19일

수리남 안석렬 선교사